

# 시민자생 문화공간 '메이홀' 2관 '이매진' 오월 청년들 손으로 개관



**문화전당 인근 40평 규모  
누구나 주인되는 공간으로**

**시네마 월드뮤직 스킴  
요리·요가 프로그램 등  
광주도심에 인기 지필 것**

광주시 동구 남동 인쇄 골목 한 건물에 자리한 오월 공간 '메이홀(MayHall·관장 임의진)'이 문을 연 것은 지난 2012년 8월이다. 메이홀은 '광주정신으로 빛을 쬐는 시민자생 예술공간'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로 구성된 '따뜻한 모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광주에서 지자체의 지원 없이 문화공간을 운영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어서 처음에는 우려도 있었다. 기우였다. 메이홀은 지난 3년 동안 '시민자생 예술공간'의 성공사례로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임옥상, 홍성담 등 국내를 대표하는 민중미술작가와 만화가 박재동 등이 오월이면 메이홀에서 전시회를 열고, 또 큰 감동을 받고 돌아갔다.

개관 3주년을 앞둔 메이홀이 10월 2관 '이매진'(Imagine)을 오픈한다. 메이홀에서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만남을 이어가던 20~30대 '오월 청년' 20여 명이 주축이돼 만든 이매진은 메이홀과는 겹쳐서 2~3분,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앞 건물 4층에 자리를 잡았다. 132㎡(약 40평) 규모의 공간에 들어서면 기다란 나무 탁자가 놓인 아늑이끼한

주방이 나오고 옆으로 난 작은 문을 지나면 넓은 나무마루 공간이 펼쳐진다. 나무마루 공간에는 부처와 예수의 얼굴을 곁친 한희원 작가의 작품이 인상적으로 걸려 있었다.

이매진에서 내다보는 풍경에 한참 매료됐다. 큼직하게 낸 창문 너머로 저 멀리 무등산이 들어오고, 앞으로는 어린이문화원 옥상 정원이 자리하고 있다. 두 풍경 사이에는 젊음의 거리 금남로를 걷는 청년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이매진은 시민·사회 운동을 하는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십시일반으로 정성을 보태 만든 공간이다. 인테리어도 임의진 관장과 청년들의 손을 직접 거쳐 완성됐다. 그래서인지 무엇보다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젊음'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이매진이 만들어진 이유도 청년들이 자유롭게 즐기고,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청년들의 생각 때문이다. 그제 광주의 청춘들이어도 괜찮고, 지나가는 여행자여도 좋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이매진 정신 속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고, 그들이 주인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임 관

장과 청년들의 바람이다.

임 관장은 "문화·예술은 자본에 의존하고 종속되면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되어 죽고 만다"며 "우리 스스로 조금씩 정성을 보태고 나누면서 만들어가는 공간이 메이홀과 이매진"이라고 설명했다.

고등학생 때부터 메이홀과 인연을 맺은 김시은(여·20)씨는 "누구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도 부르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공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메이홀이 전시와 모임 전용 공간이라면 2관 이매진은 요리와 파티, 광주와 아시아의 정신사적 가치를 논의하는 자유로운 담론이 펼쳐지는 장이다.

이매진에서는 임 관장과 강스엘씨가 5·18 기념교회 '오월' 성서연극반을 운영한다. 말씀 묵상, 영적 독서, 퀘어, 소풍 등 주차별 프로그램들로 진행된다.

정기적으로 요리반인 '먹고'도 운영된다. 조선대 와인 강사 김보라씨가 와인 강좌를, 요리사였던 이매진 강사 조정현씨가 요리를, 동티모르 피스 커피를 개척한 양동화씨가 커피 강좌를 열게 된다.

"기도하고"는 요가반이다. 인도의 정통요가를 배우면서 명상하고, 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인도에서 태어나 귀화한 전 원광대 강사 바수무쿨씨와, 가수 이효리의 요가 선생님이 알려준 박은순씨, 5·18 기념교회 강스엘 부목사가 참여한다.

영화와 음악을 배울 수 있는 '사랑하라'는 시네마 월드뮤직 스킴이다. 월드뮤직 전문가인 임 관장과 광주극장 김형수 이사, 음악 전문가인 박건구씨가 함께한다. 영화를 보고, 이야기하고, 또 영화에 나오는 음악들에게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또 이매진에는 작은 녹음실이 갖춰져 있어 음반도 녹음할 수 있다.

"처음 메이홀 문을 열면서 꿈꿨던 것에 하나가 온기가 사라져버린 공간들을 살리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메이홀이 지난 3년 동안 그런 일들을 해왔고, 앞으로 이매진은 보다 젊어진 공간으로 광주 도심에 온기를 불어넣는 일을 할 겁니다. 누구나 주인이 되는 공간, 언제든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이 앞으로 시민들을 만나게 되는 이매진입니다."

이매진 오픈 기념 파티는 10월 오후 7시다. 문의 010-2633-8904, 010-4132-8160.

/글·사진=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국악으로 하나된 영호남

13일 빛고을문화관 '동서 국악의 향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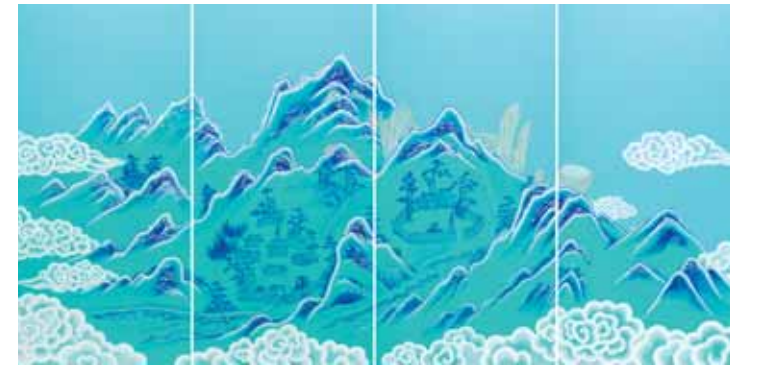
광주국악협회(회장 최상진)가 주최하는 '2015동서 국악의 향연'이 13일 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행사가 열린다.

대구국악협회(지회장 이보현)와 공동 진행하는 행사로 지난 6월 대구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공연된 바 있다.

첫 무대는 광주국악협회가 선보이는 북의 향연 '아시아의 역동'(사진)이 장식한다. 이어 대구국악협회 회원들이 '태평가' '대구 팔공아리랑' 등을 들려주며 김경애(대구국악협회)씨가 이색강류 대금산조를 선사한다.

또 새로운 꿈을 위한 사물놀이 '신모듬'가 공연되며 대구국악협회 회원들은 '상주도심기노래', '상주아리랑' 등 남도 민요와 흥겨운 '날피복춤'을 선사한다. 이번 광주 공연에서는 이연정 하나무용단의 '손복춤'도 공연된다. 마지막 무대는 2015광주U대회성공염원 '퓨전 난타'와 대동 한마당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수옥 작 '인지지락(仁智之樂)'

## 김수옥·윤윤덕 '무등에서...' 전시회

12일까지 광주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김수옥·윤윤덕 작가가 오는 12일까지 광주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무등에서 꿈꾸는 동산이몽'을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무등산을 거닐고, 관찰하고, 느끼고, 사유하고, 토론했던 결과물들이 전시된다.

김 작가는 조선 후기 무등산도의 이미지를 빌려 장지에 채색하는 기법으로 무등산을 담았다. 색을 여러번 중첩시켜 우려내는 기법으로 표현한 무등산 풍경이 진경산수화의 느낌으로 다가온다. 윤 작가는 시민들에게 친숙한 무등산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봤다. 간결한 화면 구성과 색채, 그리고 수묵 손 글씨 등 설치 작업을 통해 무등산의 서정을 보여준다. 문의 062-575-8883.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시민자생 예술공간' 메이홀 2관인 이매진을 함께 꾸러가는 임의진 관장과 김시은, 강스엘, 조정현씨(사진 왼쪽부터)가 이매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위는 요가 프로그램과 토론 등이 진행될 공간.

## 흔들리는 들풀·날리는 눈발...천개의 바람

서양화가 정희남 교수 개인전...26일까지 서울시의회 중앙홀

서양화가 정희남 광주교대 교수의 개인전이 오는 26일까지 서울시의회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다.

정 교수는 강렬한 색채와 역동적인 붓 터치, 두터운 마티에르 효과 등을 바탕으로 개성 넘치는 표현주의 화풍을 선보여온 작가다.

이번 전시에서는 '바람'을 주제로 담은 풍경화들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사진 위에 그림을 입힌 콜라보레이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작품에 담긴 바람, 길, 하늘, 들꽃 등은 작가의 고향마을에서 친숙하게 볼 수 있는 사물과 풍경들로 정 교수의 장

작 활동에 영감을 준 것들이다. 들풀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떨어진 꽃잎이 휘날리는 풍경, 날리는 눈발과 함께 푸른 대나무 잎사귀가 춤을 추는 장면에서는 바람이 느껴진다. 잡아들 수 없지만 끊임없이 떠났다 다시 자연의 품으로 되돌아오는 바람이 담긴 것이다.

"자연과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순환하는 바람이 아말로 생명을 자라게 하는 모티브다"라는 것이 작가의 말이다.

전남대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대학원 미술학과에서 석사를 마친 정 교수는 멕시코 문화교류전 등 다



'바람이 분다'

수의 전시회에 참여했으며 1996년 월간미술세계 전국 올해의 작가상, 2010년 문화부 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문의 02-3702-1356.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광주예총 시민예술대학 15일 개강

광주예총(회장 최규철) 제23기 시민예술대학이 오는 15일부터 9월 17일(매주 수·목요일 오후 3시~5시)까지 광주예총 회관(옛 서구청) 강당에서 열린다.

개강 강의는 연극배우 최종원씨가 맡았으며 여행(도용복), 미술(박정용·주라령), 무용(김미숙), 문학(조수용·최한선), 사진(오상조), 국악(김광복), 철학(정인순)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 또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와 한상대 전 검찰총장, 박해자 의원 등도 문화와 법률·정치에 대해 강의한다.

문화다사, 영화 감상 등도 진행되며 정용주(가수), 송태하·김은경(성악), 공병철(웃음 치료), 이수홍(미술), 나수경(벨리댄스, 스포츠 댄스)씨의 공연도 열린다. 원서 교부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문의 062-528-920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 전천후 시공성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뿐이기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 KIRA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대리석외벽, 대리석외벽, 대리석외벽, 대리석외벽, 대리석외벽, 대리석외벽

시공후: **그린인테리어** | 시공후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